



## “시스템반도체 1위 삼성 목표 적극 지원”

### 문 대통령, 국내 공장 첫 방문

사람·기술에 투자·전용 펀드 조성  
경제 활성화 등 다목적 포석 분석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국내 삼성전자 공장을 찾아 시스템 반도체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계획을 밝혔다. 현직 대통령의 삼성전자 국내 공장 방문은 2015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4년 만이다. 대기업 의존 가속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삼성전자를 찾은 것은 경제 활력 확보를 위해서는 민간 기업의 투자가 절실한 점, 시스템 반도체 등 3대 신산업 중점 육성 필요성, 팽배해 있는 반기업 정서 해소 등을 위한 다목적 포석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30일 경기도 화성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 반도체 비전 선포식에서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 대한 도전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명실상부한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며 “한국은 미래를 만드는 나라, 우리 제품은 미래를 선도하는 제품으로 우뚝 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람과 기술에 대한 투자와 산업 생태계 경쟁력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사람과 기술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연구·개발(R&D) 확대, 전문인력 양성 및 분야별 실무교육 강화, 팹리스(설계전문기업) 전용 펀드 신규 조성 등도 약속했다.

삼성전자 사업 성공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133조원을 투자해 파운드리(위탁생산기업) 세계 1위로 도약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밝혔다”며 “원대한 목표 설정에 박수를 보내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말했다. 지능형 검침기와 CCTV를 포함한 에너지·안전·교통 등 공공 분야에서 2030년까지 큰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시장을 창출하

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들도 새로운 투자 계획과 상생협력 강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며 “정부는 분야별로 혁신 전략을 수립해 국민과 기업이 과감하게 신산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금까지 반도체는 산업의 쌀로 불렸지만 이제 데이터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거대한 세상을 움직이는 작은 엔진이자 우리 미래를 열어가는 데 꼭 필요한 동력이라고 확신한다”며 “대통령의 말씀을 들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당부하신 대로 확실히 1등을 하도록 하겠다. 굳은 의지와 열정, 그리고 끈기를 갖고 꼭 해내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만남은 이번이 7번째다.

이날 행사는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 기업으로 우뚝 선 삼성전자의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 시점과도 맞물려 있다. 수익 악화에 시달리는 삼성전자는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으로 돌고구마를 모색하고 있다. 정부는 신산업 중심으로 산업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앞으로 정부와 삼성은 경제 분야에서 절묘한 파트너십을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고, 분식회계 의혹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이 지난 29일 구속됐다. 문 대통령의 화성사업장 방문은 이 부회장 등의 사법처리 결과와는 무관하게 합리적인 파트너십을 유지하겠다는 시그널이기도 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업의 경제 활동과 재판 등 사법적인 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영역”이라며 “이날 행사는 시스템 반도체를 가지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데 일조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라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3·16면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 시스템 반도체 5대 육성 전략

전략	주요 내용
팹리스(설계 전문기업) 육성	- 2400억원 규모 공공 수요 발굴 - 1000억원 규모 전용 펀드 신설
파운드리(위탁생산기업) 지원	- 삼성전자 등 반도체 분야 대·중견기업 세제·금융 지원 확대
산업 생태계 구축	- 팹리스와 파운드리 간 상생협력 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 및 확대 - 2030년까지 전문인력 1만 7000명 양성
기술 개발	-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에 10년간 1조원 투자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문 대통령, 이재용 회장과 7번째 회동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경기도 화성 삼성전자 사업장의 EUV(극자외선)등 건설 현장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이곳은 극자외선을 이용해 반도체 웨이퍼 회로를 더 미세하게 만드는 생산라인으로 내년 2월부터 가동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 오른쪽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맨 왼쪽은 흥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 한반도에 평화를... ‘DMZ 평화대축제’ 스타트

본보-GCS인터넷내셔널 조직위 발족  
내달 29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개최

한반도와 전 세계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된 ‘2019 DMZ 평화대축제-휴전선 철책에 평화를 걸다’ 행사가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국민일보와 GCS 인터넷내셔널(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2019 DMZ 평화대축제 조직위원회 발대식을 열었다.

변재운 국민일보 사장은 조정원 GCS 인터넷내셔널 총재 겸 세계태권도연맹(WT) 총재에게 조직위 공동위원장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어 변 사장과 조 총재는 공동위원장으로 남창현 코엑트 코리아 부대표, 안명숙 DK Kim 코리아 파운데이션 상임이사, 변관철 세계태권도연맹 총장, 문호준 경희대태권도연합회 회장 등을 조직위 위원으로 임명했다.

변 사장은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남북 관계가 그다지 좋지 못해 실망스럽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한반도 평화”라며 “이번 행사가 한반도 평화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2019 DMZ 평화대축제 조직위원회 관계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에서 발대식을 열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안명숙 DK Kim 코리아 파운데이션 상임이사, 남창현 코엑트 코리아 부대표, 변재운 국민일보 사장, 조정원 GCS 인터넷내셔널 총재, 변관철 세계태권도연맹 총장, 문호준 경희대태권도연합회 회장. 권현구 기자

조 총재는 “잘 준비해서 DMZ 평화대축제 행사가 일회성이 아니라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지속될 희망한다”며 “남북 평화의 본보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2019 DMZ 평화대축제는 6월 29일 경기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개최된다. 한민족 국기(國技)인 태권도를 통

해 박진감 넘치는 화합의 장이 마련된다. 또 세계 유일의 DMZ 철조망에서는 ‘휴전선 철책에 평화를 걸다’ 주제로 1주일간 그림 전시회가 열린다. 축제 당일에는 철책선 9km 구간을 따라 그림을 감상하며 평화를 기원하는 걷기 행사도 진행된다.

>>>관련 기사 2면

모규엽 기자 hirte@kmib.co.kr

학종 늘리고 정시 짙게 확대... 2021학년도 대입전형 >> 10

## 일 ‘레이와 시대’ 개막... 꼬인 한·일관계 개선될까

나루히토, 오늘 오전 126대 왕 취임  
아키히토, 퇴위식서 “평화 기원”  
문 대통령, 친서 보내 사의 표명

일본에서 ‘헤이세이(平成)’ 시대가 31년 만에 저물고 ‘레이와(令和)’ 시대가 새로 열렸다. 아키히토(明仁) 일왕은 202년 만에 처음으로 생전 퇴위식을 하고 장남 나루히토(德仁·사진) 왕세자에게 왕위를 넘겼다.

첫 ‘전후 세대’(1945년 이후 출생 세대) 일왕을 맞은 일본 국민은 장기 불황과 자연재난으로 얼룩졌던 헤이세이 시대를 벗

어던지고 미래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레이와 시대 개막이 과거사 문제에 발목 잡힌 한·일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는 불투명하다.

아키히토 일왕은 30일 오후 5시 도쿄 왕궁 ‘고쿄(皇居)’ 내 영빈관 마쓰노마(松の間)에서 퇴위식을 가졌다. 아키히토 일왕은 “즉위 이후 30년 동안 국민에 대한 깊은 신뢰와 경애를 갖고 천황으로서의 책무를 맡을 수 있어 행복했다”며 “나를 상징으로 받아들여주고 지지해준 국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내일(1일)부터 새로 시작하는 레이와

시대가 평화롭고 풍요로울 수 있도록 황후와 함께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앞서 아키히토 일왕은 나루히토 왕세자, 차남 후미히토 왕자와 함께 고쿄 내 신전 규추산덴(宮中三殿)을 찾아 조상에게 위위를 보고하는 의식을 치렀다.

아키히토 일왕의 연호 헤이세이는 1일 0시를 기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레이와로 대체됐다. 나루히토 왕세자는 1일 오전 10시30분 즉위식을 하고 126대 일왕으로 취임한다. 이어 오전 11시 10분 취임 후 첫 연설을 갖는다. 상왕(上皇·조코) 신분으로 물러난 아키히토 일왕은 도쿄 소재 저

택에 마련된 임시 거처에서 1년 반 남짓 머물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나루히토 왕세자 거쳐였던 아카사카(赤坂) 동궁에서 여생을 보낼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레이와 시대 개막을 한·일 관계 회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키히토 일왕에게 친서를 보내 한·일 관계 발전에 기여한 데 사의를 표하고 퇴위 후에도 양국 관계 발전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페이스북에 “한·일 양국이 새로운 우호협력 관계를 구축하도록 지도자들이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는 나

루히토 천황의 즉위를 축하하고 앞으로도 한·일 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나가기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우경화 정책이 더욱 노골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새 일왕 즉위가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일본 천황제는 상징적 제도이기 때문에 새 일왕이 행정부를 담당하는 아베 정권과 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관계를 가질 수 없다”면서 “다만 아베 정권이 레이와 시대 출범을 맞아 보다 적극적으로 새로운 외교적 자세를 취하려 할 수는 있다”고 전망했다.

>>>관련 기사 4면

조성은 권지혜 기자 jse130801@kmib.co.kr

